인도 석굴사원의 Relief Stupa 연구

A Study on the Relief-Stupa of Indian Cave Temple

김 준 오*

Kim, Juno

(전남대학교 문화재학 박사)

천 득 염

Cheon, Deuk-Youm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Abstract

The Buddhist cave temple carved into the rock provides a large space for the ritual in general in which a structure of Stupa is built in the center of the space purely for religious worship empty of Sarira, and the temple is formed around this Stupa.

Relief-Stupa of the cave temple indicates the similar shape that of Relief-religious worship of flat land temple. However, there appears a small difference in representation since the background of formation of the cave temple differs in that of flat land temple. Specially, Caitya Stupa of currently existing cave temples have been damaged to lose of their original shape only possible to be analyzed the stylistic development through Relief-Stupa from which the characteristic of Stupa could be understood. The early cave temple could be characterized with a balanced structure consists of upturn bowl, steeple stone with simple drum & Hamikawasnagae, in which it appears strongly the detail factor characteristics of drum & steeple of having system with Caitya Stupa.

In the post cave temple, the subject of worship moved to statue of Buddha due to the influence of Gandhara, Mathura art which reduced the importance of Stupa. This illustrates in Relief-stupa as well the style change as well as changes in detail factor. The sculpture appeared at the limited location either the wall of Caitya shrine or pillar in vihara cave with stronger decorative meaning. Contrast to the Relief Stupa of early flat land temples or the cave temples mentioned above sculptured with symbolism, however, the post cave temple showed the relief structure based on the plan of flat plan.

주제어 : 인도, 석굴사원, Relief Stupa, 스투파, 봉헌스투파

Keywords: India, Cave Temple, Relief Stupa, Stupa, Votive Stupa

1. 서 론

Relief Stupa는 스투파의 형태추정과 봉헌용 소형 스투파의 변화양상 이해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 그러나 일반사원에 남아있는 소수의 스투파 유구와 석굴사원 스투파는 규모가 크고, 그 자체로서 스투파의 의미를

지니나 상당부분에서 파괴와 마멸이 심하다. 따라서 그나마 원형보존이 잘 되어있는 석굴사원의 중심스투파와 벽면, 감실에 부가된 Relief Stupa를 통해 인도 초기 스투파의 시대적, 양식적 변화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에 앞서 일반사원의 Relief Stupa²⁾를 먼

* Corresponding Author : dharna5@hanmail.net

본 논문은 필자의 학위논문(『인도 초기 Stupa 형식 연구』, 2012.2)의 일부로서 논문 작성 과정에서 투고한 것이고 이미 학위논문이 제출된 상태이다. 그러나 공동연구자와 진행된 것으로 마무리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논고를 진행하였다.

2) Relief Stupa는 앞선 연구에서 ‘탑형부조’로 명명했으나 필자의 학위논문인 『인도 초기 Stupa 형식 연구』에서 언급한 용어를 사용한다. Relief Stupa는 국내에서 명확한 명칭이 정해지지 않아 기존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를 그대로 반영하였다. 그리고 인도의 Relief Stupa 유형과 분류, 시대구분, 일반사원의 Relief Stupa의 특징은 앞서 제출한 논문인 『인도 일반사원 Relief Stupa 연구』(2011.08)에 제시되어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은 생략한다. 석굴사원의 시대구분은 기존의 연구(각주3)와 각 유구에 남아있는 명문을 통해 시대적 연대를 참조하여 각 대상별 연대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며,

저 살펴보았으며, 선행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연구의 일부이다.

스투파와 함께 불교미술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는 석굴사원에 대한 연구는 학제적 입장에서 다각도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시원형태와 변화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³⁾ 이 연구들은 대체로 일반사원 스투파와 동일한 시각에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석굴사원 스투파는 유형과 변화양상에서 그 표현방식이 다르므로 개별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했다. 석굴사원에 조성된 스투파는 중심스투파와 외부에 봉헌된 스투파, 그리고 다수를 차지하는 Relief Stupa를 들 수 있다. 중심스투파는 그 유구가 많이 남아있어 시원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어 주목되나, 이 또한 파괴되거나 괴멸된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차이티야 중심 스투파는 석굴사원의 Relief Stupa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거나 부조만의 독자적인 차이점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므로 Relief Stupa는 석굴사원 중심스투파와 달리 당대의 문화, 건축, 미술의 형식적 특징과 변화과정, 세부요소, 사상적 반영에 대한 세부적인 양상을 이해할 수 있어 주목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 초기스투파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이고 있는 석굴사원의 Relief Stupa를 집중적으로 고찰, 조사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석굴사원의 내외부 벽면이나 감실 등에 부가된 Relief Stupa를 주요대상으로, 문헌연구와 현장답사를 통해 종합적인 분석을 하였다. 그러나 인도의 방대한 지역에 대한 답사가 어렵고 접근하기 어려운 석굴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대부분 서인도 테칸고원에 집중 분포하는 석굴사원의 Relief Stupa들로, 답사를 통해 조사된 97기와 초기 석굴사원의 예로 중요한 동인도 가야에 위치한 로마스리시석굴 3기로 한정한다.

이희봉의 「탐의 원조 인도 스투파의 형태 해석」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 참고하였다.

3) 최초의 석굴사원에 대한 내용은 다양한 서적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인도의 석굴사원과 스투파 유형분류에 대한 연구는 선행되었다. 서양의 초기 연구자로는 A. Cunningham, James Fergusson, Percy Brown 등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근래로는 Adrian Snodgrass, Christopher Tadgell, Benjamin Rowland, Dietrich Seckel이, 그리고 일본학자로 미야지 아키라, 마츠바라 사부로 등을 들 수 있다. 근래의 국내 논문으로는 이희봉, 「탐의 원조 인도 스투파의 형태 해석」, 『건축역사연구』 제 18권 6호 통권67호, 2009, 이희봉, 「인도 불교석굴사원의 시원과 전개」, 『건축역사연구』, 제 17권 4호 통권59호, 2008 등이 있다. 이 논문들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석굴사원 중심스투파의 유형분류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석굴사원 중심스투파는 부분적인 파괴를 보이는 개체가 상당수이며, 원형을 유지하나 스투파 부조와는 또 다른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차별성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2. 석굴사원의 조성과 전개

석가가 입멸한 이후의 초기불교는 석가가 설한 법에 대하여 문헌, 교리, 예술에서 불교교리가 하나의 체계를 이루지 못했다. 이는 석가의 근본 사상이 無心, 無慾을 통한 수행과 자연의 이치에 통달하게 되는 法을 설파하였기 때문이다. 법을 설파하고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어떠한 상징이나 조상을 금기시하였으므로 입멸 후에도 ‘無佛像사상’이 지배적 관념이었다. 그러나 일반신도들에게는 초월적 존재로 인식되는 인물에 대해 지속적인 염원과 시각적 위안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이 필요했다. 이에 불교도들은 붓다를 상징하는 건조물에 대해 보다 접근성이 쉽고, 예배를 위해 스투파 근처에 기거하면서 수행정진했다. 최초의 사당(Vihara)은 임시거처용 주거에서 시작된 것으로 나무와 짚으로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⁴⁾ 이전에는 집회나 의식이 원림이나 숲의 개간지 등 노천에서 이뤄졌으므로 이러한 건물형태는 현재 남아있지 않다.⁵⁾

석굴사원은 최초기 비와 강한 햇빛을 피하기 위한 임시주거용이자 수행하는 공간적 성격을 가졌으나, 점차 신도가 증가하면서 체계적인 승원의 시스템으로 변화했다. 또한 일반사원 스투파처럼 구체적인 예배대상이 필요하게 되면서 석굴에 스투파 형식이 조성되면서 승원의 의미가 부여되었다. 불교석굴사원은 B.C. 3세기 스투파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거의 동시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여 불교의 흥기와 쇠퇴기까지 지속적으로 개착되었다.

이러한 상징적 대상에 대한 예배행위는 점차 재가신도와 사원의 규모가 커지면서 체계적인 형태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임시주거형태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특히 4~5월 따갑게 내리쬐는 햇살을 피하기 위한 피서처이면서, 6~8월의 집중적으로 내리는 우기를 피하기 위한 대피처가 필요하게 되었다.⁶⁾ 정작 석굴의 조영은 불교 이전부터 타종교에 의해 조영되고 있던 형식이었으나 불교의 흥성과 함께 본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인도에서는 베다시대 이래 은자나 선인들의 거처로 석굴이 조성되었는데, 초기 불교도들도 이를 받아들였을 것으로 본다.

암벽을 파고 조성되는 불교 석굴사원은 일반적으로 의

4) Percy Brown, 『Indian Architecture』, D B. Taraporevala Sons & Co. Private Ltd. Bombay, 1956, p.6~8

5) 부처의 생전에는 수많은 신도에게 설법하기 위해 기증된 기원정사, 죽림정사 등의 정사들이 다수 존재하였지만, 이러한 정사도 현재 유구의 터만 남아있고 후대에 만든 건조물만이 남아있다.

6) Benjamin Rowland, 『인도미술사』, 예경, 2004, p.168.

ISSN 1588-1142(Print)

석굴을 행하기 위한 커다란 공간이 마련되고, 그 중심부에 스투파와 구조물이 세워지는데 사리가 없는 봉헌용 스투파가 중심이 되며, 이를 중심으로 석굴사원을 형성한다. 초기 석굴사원의 형태는 불교교리가 전파되고 승단이 형성되면서 이러한 성소와 禪淨修行을 위한 공간의 필요에 의해 조성되었다. 이와 같은 성소는 고대 소승불교의 금욕적 생활과 수행을 위한 장소였으나 점차 대규모의 형태로 발전된다.⁷⁾

석굴사원의 구성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스투파가 위치하는 곳은 성소의 중심으로 '차이티야(Chitya), 또는 차이티야그리하(Caityagriha)'라 한다. 차이티야는 일반적으로 '성소', '분묘'를 의미하며,⁸⁾ 그리하(griha)는 현지어로 '집'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다수를 차지하는 개인용 수행공간인 비하라(Vihara)가 동시에 조성되었는데, 비하라는 승원으로서 스투파가 없는데 반해, 차이티야는 그 중심에 스투파가 자리하고 있어 탑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의 불교미술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석굴사원이다. 현재 조사된 석굴의 수는 약 1,200여기로 약 75%가 불교석굴에 속한다.⁹⁾ 시대적으로 크게 분류¹⁰⁾하면, 전기굴은 사타바하나왕조 시기로 기원전 1세기부터 간다라, 마투라미술을 포함하는 시기인 기원후 2~3세기경까지 개굴된 굴이다. 그리고 한동안의 불교침체기를 거치고 다시 불교부흥과 함께 대단위의 석굴조성과 이후 쇠퇴·소멸되는 시기로 이 기간을 후기굴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시기는 굽타왕조와 이후 시대에 해당되는 5~8세기에 개착된 굴이 해당된다.¹¹⁾ 초기 불교석굴은 후기에 이르면서 불교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주요 종교사상이 힌두로 치우치면서 점점 힌두교와 불교가 혼재되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현상은 인도의 역사적 맥락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혼재하면서 자연스럽게 타종교를 인정하고 수용했던 문화적인 특징에 근거한다.

석굴사원의 지역적인 분포는 주로 서인도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주의 데칸산맥에 다수가 집중되어 있으며, 서북부의 구자라트(Gujarat), 그리고 후기의 화려한 석굴양식과 간다라양식이 발전된 마드야프라데쉬(Madhya Pradesh), 초기 석굴양식을 볼 수 있는 북동해안의 비하르(Bihar), 오리사(Orissa)와 남서부의 타밀나두(Tamil Nadu), 안드라프라데시(Andhra Pradesh) 등 인도전역에 산재한다.¹²⁾

3. 석굴사원의 Relief Stupa

석굴의 구조적 형식과 전개¹³⁾는 석굴사원 구조와 사상적 배경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나, 이에 대한 자료는 다수의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어 생략하며, 단 각 석굴의 연대와 특징적 요소에 대한 언급이 필요할 시 간략 제시한다.

초기의 석굴사원은 B.C. 2세기 이전에도 존재하였다. 본격적으로 종교의식으로 사용된 예로는 아지비카(Ajivika)교 석굴에서 시원적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후의 불교석굴사원에서 본격적으로 차용되기 시작한다. 아지비카교 석굴과 유사한 유형으로 변화·적용된 대표적인 불교석굴로는 남인도의 군투팔리(Guntupalle)와 서인도 안드헤리(Andheri)의 콘디비테(Kondivite)를 들 수 있다. 이들은 평면구조에서 로마스리시와 유사한 면을 보이고 있으나 중앙의 스투파 조영과 세부적인 구성요소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와 함께 초기석굴에서 발전된 예로는 바자(Bhaja), 콘다네(Kondane), 판둘레나(Pandulena), 피탈코라(Pitalkhora), 아잔타(Ajanta) 등이 서인도 데칸고원을 중심으로 인도 전역에 조성된다.

3-1. 초기 석굴사원

(1) 로마스리시, 콘디비테, 바자, 콘다네

로마스리시석굴(Tab.1.㉔)은 마우리아왕조 아소카왕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비하르주(Bihar) 라즈기르(王舍城) 부근의 가야(Gaya)시에서 북쪽 약 27km에 위치하

7) Dietrich Seckel, 『불교미술』, 예경, 2007, p.35.

8) Benjamin Rowland, 전게서, p.106~107.

9) 석굴은 서인도를 중심으로 인도 전역에 남아있는데, 이러한 석굴사원의 유행은 이후 중국에서 유행하면서 둔황이나 돈황, 운강, 용문과 같은 대형 석굴을 조영케 한 원동력이 되었으며, 한국의 석굴암 조영에까지 영향을 준다.

10) 석굴사원의 시대분류는 기원후 4~5세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시기와 양식적으로 불교의 침체기를 거치면서 큰 전환을 맞는 기간이다. 일반적으로 인도미술사(미야지 아키라, 벤자민 로울랜드)에서도 대부분 이 기간으로 시대구분하고 있어 본고에서도 이를 따른다.

11) 미야지 아키라, 『인도미술사』, 다중·미디어, 2006, p.92. 전기굴은 대부분 불교석굴이며, 후기굴에는 불교석굴 외에 자이나교와 힌두석굴이 포함되고 있다. 특히 엘로라석굴에서 볼 수 있듯 시대별로 불교, 자이나교, 힌두교석굴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이나교석굴은 소수를 보이고 있으며 전기와 후기에 모두 공존한다.

12) 미야지 아키라, 전게서, p.92.

13) 이회봉은 초기 연구자인 A. Cunningham, James Fergusson, Percy Brown 등의 연구를 토대로 직접 답사를 통해 유형과 전개에 대해 정의하였다. 석굴의 시원과 비하라굴, 차이티야굴의 발생과 발전에 대해 유형별 분류하였다. -이회봉, 『인도 불교석굴사원의 시원과 전개』, 『건축역사연구』 제17권 4호 통권 59호, 2008.

Tab.1 Relief Stupa of the Lomas Rishi, Kondivite, Bhaja, Kondane cave temples

Grottoes	Lomas Rishi	Kondivite		Bhaja	Kondane	
Date	㉑ B.C. 2세기	㉒ B.C.2~1세기	㉓ B.C.2~1세기	㉔ B.C.2~1세기	㉕ B.C. 80년	㉖ B.C. 80년
Location	석굴 아치 정면 상부	1굴 비하라굴 가운데 벽면	북면 비하라 사이 외벽 감실형	19굴 전면 베란다 입구 평방부재 위	차이티야굴 파괴된 8각 열주 상단	대형 비하라의 베란다 오른 벽면
Quantity	3	1	1	7	1	1
Anda(覆鉢) globosity%	각진 원형	60	70, 길어짐	50	55	55
Drum (Medhi)	경사드럼, 4단 띠돌림	3단 띠받침, 표면 멸실	4각기단, 상하로 3겹의 4각 띠돌림	단순 드럼 2기 경사형 드럼 5기	단순 드럼	단순드럼
Vedika	-	멸실, 난간 흔적	-	드럼부 4기, 상륜부 2단 7기	-	드럼부 2단, 상하 띠돌림, 상륜부2단
Anda/ Drum Ratio	1.8	0.8	1.6	1~1.2	1	1
Harmika	-	-	3단	-	4각 평두	5단, 卍자형 목구조
Chattra, Yasti	-	2, 심한 멸실	미상, 산간 파괴	천정 새김	1, 굽은 일체형	다각형(8각?)의 산간
Photos

는 바라바르 언덕(Barabar Hill)에 있다.¹⁴⁾ 이곳은 초기석굴사원이면서 일반적인 예배를 위한 형태를 보이기 시작한 예로 주목된다.(Fig.1)¹⁵⁾

로마스리시 Relief Stupa는 석굴 입구 facade에서 고딕양식과 유사한 Tympanum 구조를 가진 고대 인도의 초가집 형태¹⁶⁾가 표현되었다. 전면부는 아치형 지붕부와 민흘림기둥, 목구조에 의해 출입구의 형태를 보이는데 소형스투파가 3기 조각되어 있다. 스투파는 10cm 내의 작은 크기로

Fig.1 Lomas Rishi Foreground

세부적인 표현이 생략되고 원통형 드럼과 4단의 띠돌림, 위로 복발의 형태가 표현되었다. 이 형태는 불교스투파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스투파 형식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8마리의 코끼리가 중앙의 스투파로 집중되는데 이러한 도상표현은 산치나 아마라바티의 서사부조에서도 등장하는 모티프이다.

이후 초기불교에서 본격적으로 조성된 석굴사원으로는 군투팔리, 콘디비테, 바자석굴을 들 수 있다.

콘디비테(Kondivite)석굴에서는 2기의 Relief Stupa가 확인(Tab.1)되었으며, 초기양식을 가진 석굴로서 양식과 도상의 변화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중심 차이티야에는 환조형의 스투파가 위치하고, 2개의 봉헌된 Relief Stupa는 비하라 1굴 중앙 벽면의 심조에 의한 저부조(Fig.2)와 최초 조영보다 후대의 것으로 보이는 북면한 비하라 사이 감실에서 확인된 Fig.2 Relief Stupa of Kondivite Cave. No.1

(Tab.1.㉒)의 Relief Stupa는 장방형의 평면으로 정확한 연대를 알 수는 없으나, 석굴 개착 연대보다 후대에 조영된 것으로 보인다.¹⁷⁾ 1굴의 벽면부조는 암질이 화산암

14) 윤장섭, 『인도의 건축』,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p.68.

15) Percy Brown, 『Indian Architecture』, D B. Taraporevala Sons & Co. Private Ltd. Bombay, 1956, p.15. 비하르주 승원굴의 명칭은 Barabar Hills은 Karna Kaupar, Sudama, Lomas Rishi, Visvajhopri이며, Nagarjuni Group은 Gopika, Vahijaka, Vaadahlhika이다. 이 석굴들은 아지비카교(邪命外道)에 의해 조성되었으며, B.C 3세기 아소카왕이 기증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정작 불교사원은 아니지만 석굴사원과 Relief Stupa를 이해하는데 있어 로마스리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후 전개되는 석굴사원은 기본적으로 로마스리시의 형식을 어느 정도 차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불교 석굴사원의 형식적 전개를 이해하는 기준이 된다.

16) 이 형식은 이후 불교석굴사원과 일반사원 스투파를 비롯하여 힌두, 이슬람 등 인도의 모든 건축물의 기본적인 테마로 자리 잡는다. 특히 석굴사원 차이티야 중심스투파가 안치된 공간에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 형식이 점차 발전되어 입구의 수많은 아치형 문양과 장미장에도 적용된다.

17) 이는 대부분의 Relief Stupa가 돌을새김하는 것이 기본적인 새김 방식으로 처음 굴을 개착할 때 조각되었다면 벽면을 파고 들어

ISSN 1588-1142(Print)

이면서 심하게 마멸되어 형태가 불명확하나 반원형 복발과 상하를 두른 드럼부, 산개가 약하게 표현되어 있다. 복발/드럼의 비율은 드럼이 복발보다 크지 않아 초기 탐문부조 도상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초기 석굴사원에서 비하라에 Relief Stupa를 모신 몇 안되는 사례 중 하나로, 부조형 스투파 모심이나 환조형 스투파가 비하라굴에 조성되고 성행하기 이전의 것으로 보인다.

북면한 Relief Stupa(Tab.1.㉔)는 두 비하라 사이에 높지 않게 굴감을 조성하고 그 안에 조각되었다. 이 부조는 남면한 차이티야 중심스투파나 1굴 부조와 상당부분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5~6세기의 석굴과 스투파에서 보이는 방형대좌와 감실이 표현¹⁸⁾되어 있다. 특징적으로는 복발이 길고 작아지면서 그 비중이 약화된다. 그리고 4각의 기단부가 강조되면서 기둥을 세워 감실을 조성하고 있다. 상부는 3단의 하미카가 있고 산개는 멸실되어 있다. 전체적인 조형은 정묘한 균형감이 보이지 않으며 투박하고 거칠게 표현되었다.

바자(Bhaja)석굴은 초기 석굴사원 형식에서 장방형의 전실과 원형 후실이 결합된 차이티야의 전형을 보여주는 곳이다. 바자 19굴은 비하라로서 7개의 Relief Stupa(Tab.1.㉕)가 남아있는데, 전면 베란다 입구(Fig.3)

에 조각된 목구조 형태의 평방부재 공간에 조각됐다. 형태상 공간적 협소함에 기인하여 전체적으로 크기가 작으며 생략된

Fig.3 Relief Stupa of the entrance of Cave. No.19

표현이 많이 보인 다. 이 부조는 주 차이티야 스투파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나 장식적인 요소가 배제된 채 매끈하게 다듬어진 형식이다. 그러나 반원형 복발과 낮은 단순드럼, 상부의 난간부가 남아있어 유사함을 보인다. 7기의 Relief Stupa는 반구형의 복발형태로 연화문과 유사한 매듭, 술 장식이 있으며, 2기의 개체에서 드럼부 위로 기둥이 세워진 형식이 조각돼 있어 특이하다. 이 표현은 일반적이지 않은 장식으로 남인도 스투파의 아야카 기둥(Fig.4)과 연관할 수 있으나, 연대상 바자석굴이 앞선 형식이므로 아야카의 시원적 형식이라

가치 않았을 것이다. 몇몇 석굴에서 보이는 오목새김의 형식은 석굴 개착 연대와 양식적 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

18) 인도 현지의 Kondivite 안내판 참조. 콘디비테석굴이 B.C. 2세기부터 A.D. 6세기까지 조성되었으므로 복발은 좀 더 늦은 시기에 개착되어 부가된 것으로 본다.

할 수 있다. 드럼은 단순형 2기와 경사형이 5기이고, 난간이 조각된 개체가 4기, 하미카에 조각된 난간이 2개체이다. 상부는 모두 천정새김 돼 하미카부분을 생략하거나 소략하였다. 이를 보면 주차이티야 양식과 구조적 특징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초기의 스투파 양식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Fig.4 Amaravati Relief Stupa

콘다네(Kondane)석굴에서는 2개체가 조사되었다. 콘다네 차이티야는 그 구조가 바자석굴과 유사하나 외벽의 소인물상에서 자유로운 동세가 표현되고 있어 보다 후대인 B.C. 80년경의 개굴로 본다.¹⁹⁾ Relief Stupa가 조각된 비하라는 같은 시대의 것으로, 내부 광장 둘레에 열주가 세워진 발전한 형식(Fig.5)이다.

콘다네에서 주목되는 Relief Stupa는 심하게 파괴된 비하라(Tab.1.㉖)

로, 베란다 우측벽면에 불감을 파고 조각됐다. 형태적으로 반원형 복발, 단순드럼에 난간, 상부 난간과 하미카, 산간으로 구성되는데 외부조각과 함께 그 솜씨가 빼어나다. 부조는 1m 남짓의 크기로 전체적으로 환조형을 띤 고부조로 조각되었으며, 균형과 비례감이 뛰어나 흔적만 남

Fig.5 Square Colonnade and Monk perform room of Vihara

Fig.6 The upper part of the Vihara Relief Stupa

은 차이티야 스투파 형태를 추정하는 단서가 된다. 하미카의 하부구조와 산간표현이 특징으로는 하미카에서 난간과 함께 井자형

19) <http://terms.naver.com/item> 네이버 용어사전. 답사를 통해 보았을 때, 중심 차이티야 스투파는 현재 심하게 파손되어 그 형체가 많이 사라졌으나 전체적인 형태가 비하라 부조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의 목구조 받침이 조각(Fig.6)되어 있다. 井자형 구조는 마자와 카를리석굴에서 다소 보이는 것으로, 이러한 하미카 구조는 본래 목조형식을 번안한 표현으로 이해된다. 또한 이는 산개가 생략되고 8각 산간만 표현돼 있는 독특한 사례라 할 수 있는데, 이와 유사한 유형은 아마라바티 일반사원 스투파의 상부구조에서도 보이고 있다.

다른 하나의 Relief Stupa는 차이티야의 파괴된 8각 열주 상단에 작은 크기로 남아있다. 부조(Tab.1.㉔)는 드럼, 복발, 산개의 단순한 형태이며 초기 형태를 보인다. 드럼과 복발 비가 거의 1:1을 보이고 있으나 세부묘사가 생략되어 형태적인 의미만을 전할뿐이다. 주목되는 점은 산개형태가 방형 부재 위에 부챗살 모양의 일체형으로 장식된 것이다. 이 형식은 초기 Relief Stupa에서 보이는 식물문 산개(Fig.7)의 원형이 아닌가 싶다. 산

Fig.7 Votive Relief Stupa of Amaravati

치 탑문과 아마라바티 부조에서 보이는 식물문과 연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요소로서 번과 산개가 일체화되어 단순하게 표현되었다.

(2) 판둘레나, 아우랑가바드

판둘레나(Pandulena, Nasik)(Tab.2)석굴은 아잔타 9굴, 베드사 석굴과 함께 초기 석굴의 다음단계에 속하는 굴로 B.C. 1세기~A.D. 2세기경에 속한다. 모두 24굴로 이루어졌으며, 차이티야는 18굴 하나이다.²⁰⁾

Relief Stupa는 차이티야 18굴(Fig.8)과 비하라 3굴, 10굴²¹⁾에 조영되었으며, 모두 10기가 조사되었다. 형식상 가장 주목되는 것으로는 비하라 3굴 (Tab.2.㉔) 부조이다. 이는 콘디비테 내부의 중앙벽면에 조각된 사례와 위치상 유사함을 보인다. 그러나 콘디비테와 달리 판둘레

20) Superintending Archaeologist 판둘레나 석굴 안내판 참조. 이 석굴은 Satavahana와 Kshaharatas 왕조의 치세기간에 속하는 것으로 특징으로 역사적 의미를 가진 명문을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A.D. 2세기의 석굴이 가장 많이 조성되는 시기의 양식으로 석굴건축의 눈부신 변화양상을 대표한다.

21) James Fergusson, 『History of Indian and Eastern Architecture』, John Murray, Albemarle Street, 1891, p.116. 비하라 3, 8, 10, 23번 승방굴 사이에는 크기에서 다른 것들보다 조성계획과 탁월함이 현저하며, 건축적 장중함과 조각 장식이 최적의 조합으로 표현되고 있다. 10굴 비하라는 이 시대 석주 장식의 최적의 견본을 가지고 있다고 고려된다.

나 3굴은 대규모 승원으로 승방 사이의 넓은 벽면에 등신대 크기로 조각된 특징이 있다.²²⁾

석굴 중앙에는 누운계란형의 복발, 길어진 드럼과 난간, 5단의 하미카와 상하 난간, 산개가 조각되어 있다. 복발은 초기의 부조보다 작아지고 타원형의 누운계란형을 하고 있다. 또한 드럼부가 길어지면서 3단의 돌출된 난간이 자세하게 조각되어 있다. 하미카는 5단을 이루고 위아래로 삼각뿔의 장식과 난간이 둘러져 있으며, 산개는 중앙에 1개, 양옆으로 2개씩 총 5개가

Fig.8 Pandulena Chaitya Stupa

Fig.9 Relief Stupa of upper in Vihara Cave, No.3

조각(Fig.9)되어 있다. 3굴은²³⁾ Fig.10 Drum abbreviation and Chattra type of Sanchi Stupa I

비교적 후대인 A.D. 2세기의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형식은 같은 시기 남인도의 아마라바티, 나가르주나 콘다나 산치사원의 스투파 형식(Fig.10)에서 유사함을 보이고 있어 당대 유행한 양식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10굴(Tab.2.㉔)에서도 유사한 형식의 산개가 보이는데, 10굴은 추정연대가 B.C. 2세기 이후로 보고 있으나 양식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으므로 3굴과 같은 형식이 유사하게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10굴은 현재 복발과 드럼부를 모두 파괴하고 그 자리에 다시 힌두신을 조각하였는데, 윗부분에 남아있는 하미카와 산개의 모양으로 보아 3굴

22) 콘디비테가 비하라 스투파 신앙의 초기적 형태였다면 보다 발전된 양태를 보이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표현방식은 준나르 시바네리 비하라를 들 수 있으며, 형식상 차이티야 스투파와 유사하고, 차이티야 입구형식 또한 연계할 수 있다.

23) James Fergusson, 전게서, p.116.

Grottoes	Pandulena					Aurangabad
Date	㉑ A.D. 2세기	㉒ A.D. 2세기	㉓ B.C. 2세기	㉔ B.C. 2세기	㉕ B.C. 50년	㉖ B.C. 60년
Location	3번 비하라 정면벽	3번 비하라 베란다 입구 상부	10번 비하라 정면벽	비라하 23, 24굴 협시불 이마부	차이티야 18굴 입구 상부	차이티야굴 입구 좌측 하부
Quantity	1	1	1	3	4	1
Anda(覆鉢) globosity%	75, 누운계란형	80, 누운계란형	파괴	60~90	55	80, 원형
Drum (Medhi)	단순드럼	3단 단순드럼 드럼 양귀 솟음	파괴	2단 1기, 4단 2기	경사드럼	단순드럼 2단 떠돌림, 3중 기단
Vedika	드럼 3단. 상하 떠돌림, 하미카2단	미상	복발부 미상, 하미카 3단	미상	드럼 각 2단, 하미카 각 2단	미상
Anda/ Drum Ratio	2	1.2	파괴, 힌두신 대체	1.6	각 1.1	2.7
Harmika	5단	3단, 윗면 굴곡	5단	1단	각 3단	3단
Chattra, Yasti	중앙 1, 양 측면 각 2, 산간 식물문	1, 곡면형	중앙, 양측면 각 1, 산간 식물 문양	곡형 산개 1개, 각 상부 산간	각 상부 산간, 1기 멸실	1, 천정새김, 산간
Photos

과 유사한 부조였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3굴 베란다 입구 상부의 장식용 Relief Stupa(Tab.2.㉒)를 보면, 간략한 표현과 세부묘사 생략, 드럼하부가 위로 굴곡을 이루고 산개에서 곡면 형식을 보인다. 이는 앞서 언급한 콘다네석굴 열주의 Relief Stupa 산개형식과 유사함을 보이는 것이다.

차이티야 18굴은 전면 facade 배면(Tab.2.㉕)의 화려한 건축적인 조각과 함께 상부에 4기가 나란히 조각되어 있다. 이들은 차이티야 스투파와 형태상으로 차이를 보이는데, 복발과 드럼의 비율이 작아지고 하미카 상부 또한 대체로 작게 묘사되었다. 상부 하미카는 3단으로 난간이 조각되었으며 전체적인 형태에서 안정감을 주고 있다. 반면 23, 24굴(Tab.2.㉔)에서는 특이한 형식의 조각을 보이고 있다. 모든 석굴사원의 Relief Stupa 형식과 달리 불상의 이마부에서 化佛²⁴⁾의 다른 표현으로 나타나는 化塔이 3기 보인다. 일반적으로 보살상의 이마부에는 화불이 조각되는데 반해 화탑의 형태로 조각된 특이하고 유일한 예²⁵⁾이다.

아우랑가바드(Aurangabad)석굴(Tab.2.㉖)은 주요 굴이 8굴이며 제4굴만 전기에 속하고 나머지 비하라는 후

대에 조성되었다. 차이티야 4굴의 중심스투파는 B.C. 60년경에 조성되어 초기 스투파 유형을 보이거나 복발이 작아지고 드럼부가 길어지며 상부 하미카가 약화된다.

Relief Stupa는 차이티야 4굴의 전면부 입구가 상당부분 파괴, 소실되었는데 왼쪽벽면 하부에 불상, 공양자상과 함께 작은 크기로 조각되어 있다. 원형 복발과 단순드럼, 방형의 3단 기단, 하미카, 산개로 구성되어 있다. 복발과 드럼의 비율은 거의 1:1이며, 하부의 방형기단이 더해지면서 복발의 크기가 매우 작아진다. 드럼부는 폭이 좁아지고 방형기단이 강조되어 있으며, 3단의 하미카와 산개가 천정새김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암질이 고르지 않아 거칠게 표현되었으며 날렵하고 고준해진 형식이다. 조각방식은 중심스투파와 양식적 차이를 보이는데, 평벽면에 심조로 표현되고 있어 간다라 스투파 양식이 적용된 A.D. 1세기 이후에 부가된 것으로 보인다.

(3) 준나르

준나르(Junnar)석굴(Tab.3)은 인도 서부의 마하라슈트라주 Puna와 Nasik의 중간에 위치하며, 크게 투르자(Tulaja), 시바네리(Shivaneri), 만모디(Manmodi), 레나드리(Lenyadri) 등의 네 언덕에 B.C. 1세기부터 A.D. 3세기에 걸쳐 조성된 150여개의 불교석굴군이 있다. 전반적으로 2~3세기에 조성된 것이 많으며 비하라굴의 규모가 작은 특징이다.²⁶⁾ 네 석굴군 중 Relief Stupa는 투르

24) 변화한 부처, 곧 變化佛로서 중생의 근기와素質에 따라 갖가지로 형상을 변화하여 나타내는 佛身이다. 그리고 분신불로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부처님이 중생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것이며, 삼신의 하나로 應身·응신불이라고도 한다.

25) 세부묘사는 생략되고 복발과 2단의 기단, 상륜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형태상으로는 굴호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석굴에 조각된 불상표현의 양식으로 보았을 때 석굴 조성이 B.C. 2세기와는 일치하지 않고 있어 후대에 부가된 석굴로 보인다.

26) <http://terms.naver.com/> 지식백과, 해당 석굴은 답사를 하였으나 투르자 3굴의 원당과 열주를 가진 차이티야당을 찾지 못했다. 정작

Tab.3 Relief Stupa of the Junnar cave temples

Grottoes	Junnar Tulaja			Junnar Shivaneri		
Date	㉑ B.C 1세기	㉒ B.C 1세기	㉓ B.C 1세기	㉔ A.D. 2~3세기	㉕ A.D. 2~3세기	㉖ A.D. 2~3세기
Location	투르자 차이티야 40굴 정면 상단	투르자 비하라 45굴 상부	투르자 비하라 28, 29굴 사이 외벽면	시바네리 비하라 내부 정면 불전	시바네리 비하라굴 입구 좌측 벽면	시바네리 비하라 18굴 입구 벽면
Quantity	2	7	1	1	1	1
Anda(覆鉢) globosity%	50	50	미상	길어진 타원형	80	65
Drum (Medhi)	단순드럼	단순드럼	단순드럼, 2단 띠돌림	낮은 단순드럼	경사드럼 파괴	경사드럼
Vedika	하미카 2단	드럼 3단, 상부 띠돌림, 하미카2단	드럼 2단, 상하 띠돌림	하미카 2단	드럼부 3단, 하부 띠돌림	-
Anda/ Drum Ratio	1	1.5	약 1.5	0.4	1.3	1.5
Harmika	각 4단, 상부 2배 정도 두꺼움.	각 5단, 하부에 2개의 4각 기둥	미상	4단, 4층에 삼각뿔 장식	3단, 사각방형	미상
Chattra, Yasti	1, 천정새김, 짧고 굵은 산간	각 1, 짧고 굵은 산간	미상	1, 천정새김, 굵은 산간	1, 천정새김, 산간	3(각 1개)3갈래 연줄기 모양
Photos

자, 시바네리에서 각각 10기와 3기를 확인하였다.

먼저 투르자석굴은 40굴(Fig.11)에서 45굴까지 하나의 승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차이티야 Relief Stupa는 전면 facade 상부에 2기가 조각 (Tab.3.㉑)되어 있다. 차이티야 스

Fig.11 Chaitya Front facade of Tulaja Cave No.40

투파는 상당부분 파손되어 형태상으로 거칠고 조잡한 조형인 반면, facade 벽면부조는 건축적인 구조와 함께 정교하고 안정감 있는 조각을 보인다. 북발은 반구형이며 드럼부가 낮고 넓어 높이와 넓이의 비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상부에는 최상부만 두텁게 조각된 4단의 하미카가 있으며, 난간과 함께 천정새김된 산개로 구성되어 있다. 위치상으로 한정된 면에 조각하면서 반영된 형태로 볼 수 있다.

비하라 45굴(Tab.3.㉒)은 40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차이티야 Relief Stupa와 유사한 양식을 보인다. 아치창이 있는 3개의 비하라에 조성되었으며, 각 입구 사이에 7기가 조각되어 있다. Relief Stupa는 형식상으로 차이티야의 Relief Stupa와 유사하나 하미카가 강조되는

특징이다. 비례상으로 북발 아래의 하부와 하미카 위의 상부가 거의 1:1의 비율을 보인다.

그리고 투르자 석굴군의 비하라 28굴과 29굴 사이에는 Relief Stupa 1기(Tab.3.㉓) 남아있는데, 대부분이 파괴되었으며 거의 환조형을 띠고 있다. 두 굴 사이의 암벽을 깎아내고 배면이 암벽을 면하고 있어 거의 환조에 가깝다. 북발

Fig.12 Relief Stupa railing detail of Vihara No.28 and No.29

과 난간 표현(Fig.12)이 남아있다.

다음으로 준나르 시바네리 석굴군(Tab.3)은 투르자 옆에 위치한 높은 언덕 중간에 위치하는데, 이곳에는 언덕 위로 이슬람 고성이 남아있다. 시바네리에는 3개의 Relief Stupa가 남아있으며, 투르자와 레나드리 석굴과 시대적으로 3~4세기의 차이²⁷⁾를 보이고 있다.

먼저 Relief Stupa를 보면 비하라 내부 정면(Fig.13)의 각 승원 사이에 Relief Stupa 1기가 조각(Tab.3.㉔)되어 있으며, 판둘레나와 콘디비테의 예와 유사한 형식

투르자 3굴은 확인을 통해 단순 비하라가 위치하고 있어 석굴넘바가 나중에 바뀐 것으로 보인다.

27) 시바네리는 앞선 양식에 비해 조각이 서툰 비전문적인 석공에 의한 조형으로 보인다. 다만 방형평면을 보이는 차이티야 스투파는 조각이 균형 잡혀 있어 조각가가 다르거나 시대적인 차이가 있어 보인다.

ISSN 1588-1142(Print)

을 보인다. 바로

옆에 조성된 비

하라 입구 좌측

벽면에는 드림

하부가 상실된

Relief

Stupa(Tab.3.

©)가 남아있으

며 조각방법이

유사하다. 대체로

복발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

는 길어진 타원형이

며 드림부가 작아

진다. 입구에 조각

된 스투파는 복발의

형태가 유사하고

드림부가 파괴되어

있으나 긴 형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비하라 18

굴 입구 좌측 벽면

의 1기(Tab.3.④)

는 대체로 파괴된

형태를 보이며 저

부조로 조각되어

있어 볼륨감이 없

다. 물방울형의 복

발과 길어진 드림

, 천정

새김의 3갈래로 나

뉘지는 식물문양 산

개가 조각되어 있

다. 2~3세기의 아

마라바티 일반사

원 산개 표현형식과

일치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형식을

파악하기는 어렵

다.

그리고 비하라 18

굴 입구 좌측 벽면

의 1기(Tab.3.④)

는 대체로 파괴된

형태를 보이며 저

부조로 조각되어

있어 볼륨감이 없

다. 물방울형의 복

발과 길어진 드림

, 천정

Fig.13 Vihara Relief Stupa of Shivaneri

Fig.14 Chaitya Stupa of Ajanta No.9

Fig.15 Front-side Relief Stupa of Chaitya No.9

오른쪽 벽면에 2기(Fig.15)가 조각돼 있다. 굴의 개착연대가 B.C. 2~1세기경인 것을 감안 하였을 때, 후대에 부가된 것으로 보인다. 전면 2기의 상세(Tab.4.㉓)를 보면 복발이 구형의 형태를 보이는데 누운계란형이고 드림부가 2중 난간이다. 하부는 외부 난간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상부로 4단의 하미카와 3단의 산개와 산간, 술장식이 되어 있다. 특이점은 2중 난간과 함께 중간에서 연화좌로 상부 장식을 받치고 있으며, 상부 난간에서도 허리가 오목하게 들어가게 표현하고 있다. 상부의 하미카는 방형단 위로 4단을 형성하는데 최상부에서 들어쌓기 형식을 보인다. 이는 하미카 양식³¹⁾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예이다. 또한 상부의 산개형태도 변화된 형식을 보이는데, 3개의 산개가 종축으로 층층이 구성되어 초기 일반사원 스투파와 석굴사원 Relief Stupa에서 보이는 산개양식과는 상이하다.

이와 함께 오른 벽면의 Relief Stupa 2기는 정면 입구의 것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면서도 구조에서 차이가 보인다. 세부적인 묘사가 약화, 생략된 형식이며, 하부의 것은 상당부분 파괴되어 구체적인 형태를 파악하기 힘들다. 상부 스투파의 복발은 계란형이며 방형으로 보이는 2단의 기단과 하미카부가 있으나 산개는 생략되었다. 기단은 방형인지 드림의 표현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복발과는 표현방식이 다르므로 방형대좌로 볼 수 있다. 하부 스투파는 복발과 하미카만 보이는데 복발 하부에서 불상이 조각되고 크지 않은 복발부만 표현된 것이 특이하다. 이러한 조형의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특이한 예³²⁾라 할

28) 아잔타 석굴을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는 것은 조성연대가 확실하여 분리하여 서술한다.

29) 미야지 아키라, 전거서, p.98. 제10굴은 형식에서 바자석굴과 유사하나 그보다 고식의 형태를 보이는 반면, 제9굴은 정면에 커다란 장미창이 딸린 문, 많은 장식 등에서 양식적으로 발전된 외관을 나타낸다. 아잔타석굴의 차이티야 스투파는 기단부에 감실과 불상, 그리고 많은 장식이 첨가되어 수직적으로 높아지며, 절부분이 복잡한 모습으로 변모하는 등 일련의 변화를 보인다. 반면 복발부분은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데, 이는 불상이 도입되면서 예배의 대상이 바뀌면서 변화된 현상으로 보인다.

30) 윤장섭, 전거서, p.108. 제8~13굴은 B.C. 2세기~A.D. 1세기의 소승불교 시대에 만들어졌으며, 이후 500여년간 개착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450년경부터 대승불교 석굴이 개착되었다. 제 6, 7, 11굴은 450~500년, 제15~20굴은 550년경, 제21~26굴은 550~600년경에 만들어졌다. 제 1~5굴은 600~625년, 제27, 28굴은 625~642년에 개착되었다. 이 중 4개가 차이티야굴인데 제9, 10굴은 소승불교의 것이며, 19, 26굴은 대승불교에 의해 개착된 것이다.

31) 아잔타는 중국과 한국 등 동아시아의 구범승이 주로 활동하였던 곳으로 이곳의 탑과 불상 양식을 참조하여 각 나라별로 탑 조형이 많이 이뤄졌다. 그러므로 여기서 보이는 하미카의 형식이 동아시아 석탑양식과 친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주목된다. 전탑과 모전석탑과 유사한 형태이나 형태적 연관성은 알 수 없다.

Tab.4 Relief Stupa of the Early Ajanta, Kanheri cave temples

Grottoes	Early Ajanta		Early Kanheri		
Date	㉑ B.C. 2~1세기	㉒ B.C. 2~1세기	㉓ A.D. 160년	㉔ A.D. 160년	㉕ A.D. 160년
Location	차이티야 9굴 입구 정면 2	차이티야 9굴 입구 우측2	차이티야 3굴 8각 석주 주두	차이티야 3굴 베란다 우측 하단	차이티야 3굴 베란다 좌측 불감 상부
Quantity	2	2	2	2	1
Anda(覆鉢) globosity%	75, 80(구형, 누운계란형)	60, 75(구형, 누운계란형)	50, 55	80, 누운계란형	원형 사리기
Drum (Medhi)	방형기단 위 연화문장식, 드럼부 2중 띠장식	2중 방형기단 1기, 미상	경사드럼, 하부 연화장식	상하 방형 기단, 상하 2중 띠돌림	-
Vedika	기단부 상하-2기	-	드럼 2단, 하미카 2단	-	-
Anda/ Drum Ratio	1.2	1.2	1, 1.1	각 2.2	-
Harmika	4(마름모꼴, 출입구, 상부 작아짐)	3(우측벽 上), 미상(우측벽 下, 위 연화좌와 불상)	4, 산간에 장식	3, 4단	-
Chattrā, Yasti	3(출입구 좌우, 술장식), 산간, 우측벽 생략	3(출입구 좌우, 술장식), 우측벽 생략	1, 천정새김, 상부 장식	각 3, 산간, 양측 변 조각	-
Photos

수 있다. 이상 4기의 Relief Stupa는 차이티야 스투파와 최초 석굴 조성연대와 달리 후대에 조성되었음을 계란형 복발과 드럼부의 연화좌 문양, 4단 하미카, 3단의 산개를 통해 알 수 있다.

칸헤리(Kanheri)석굴³³⁾은 비교적 후대에 개작된 대규모 석굴군이며, 계곡의 좌우로 100여개가 넘는 크고 작은 석굴 중 제3굴 차이티야는 카를라 차이티야와 한층 유사한 구조와 형식을 보이고 있어 규모와 건축적 완성도에 비견되지만 조형적으로 쇠퇴함을 보인다.³⁴⁾

칸 헤 리 의 Relief Stupa

는 총 17기 조성되었는데 2세기에 조성된 차이티야 3굴과 6세기 후반 개작된 90굴에 집중되어 있다.

Fig.16 Centered Stupa of Chaitya No.3

먼저 차이티야 3굴의 베란다 우측 하단에 조각된 2기(Tab.4.㉔)를 보면, 주굴의 조형 양식과 큰 차이를 보인다. 차이티야 스투파(Fig.16)의 형태는 반원형의 복발과

단순드럼 위에 2단의 넓은 띠돌림이 돼있어 초기 스투파 유형을 보이는데 반해, 베란단에 조각된 Relief Stupa는 이보다 후대에 부가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복발에서 거의 1:1 비율을 보이는 중심스투파와 달리 3굴의 베란다 Relief Stupa(Fig.17)는 복발이 작아지는 경향이 보이며, 기단과 상부의 하미카, 산개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 복발 형태는 누운계란형으로 약 1:2.2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장식적인 요소가 강조되고 그 중요도가 약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기단은 드럼이 사라지고 2단의 방형대좌³⁵⁾가 높게 조각된다. 그리고 하미카와 3단의 산개가 있으며 양옆으로 변장식이 되어 있다. 작은 크기이지만 세부적인 조각솜씨가 단아하

Fig.17 Relief Stupa of Chaitya No.3

고 섬세하며, 비례와 균형이 잘 잡혀 있어 고준하면서도 안정적인 느낌을 준다. 부조는 베란다 외부 벽면에 오목 새김을 하였으므로 시기적 차이에 의해 각각 초기양식 조영과 간다라양식이 반영된 형식에 의해 후대에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3굴의 입구 상부에는 비천에 의해 장식적인 사리기(Tab.4.㉕)를 받치고 있는 형상도

32) 일반사원 스투파 형식과 닮아 있지만 하미카가 크게 조각되어 있어 형식상 어디에도 속하기 어렵다. 이는 「인도 일반사원 탐험부 조 연구」(2011)를 참조할 수 있다.

33) 사타바하나왕조의 야주냐슈리, 샤타카르니의 치세 174~203년? 경 조영된 것이다.

34) 미야지 아키라, 전게서, p.101~102.

35) 이러한 기단형태는 동아시아, 특히 한국의 통일신라 이후 주류를 형성하였던 석탑의 2중기단과 유사함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보이는데, 뚜껑부분에서 연화문, 꽃봉오리 장식과 사방으로 퍼지는 꽃장식이 조각돼 있다.

그리고 차이티야 3굴 팔각열주의 Relief Stupa(Tab.4. ©)는 마투라, 코끼리, 사자, 보리수, 남녀 공양자상 등의 다양한 도상이 주두 상단에 천정부와 연결되어 있다. 이중 Relief Stupa는 2기로 주변에 코끼리와 나가상의 스투파와 공양하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다. 차이티야는 A.D. 160년대 조영으로 동시대에 조각된 것으로 보인다. 스투파의 형태는 반구형 복발과 드럼, 그리고 상륜부의 기본적인 구조로 드럼에서 2단의 난간과 함께 하부는 모두 연화좌에 의해 구성되었다. 상부에는 4단의 작은 하미카와 난간이 둘러져 있다. 그리고 산개와 산간의 위치에 특이한 장식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형상은 알 수 없으나 꽃공양으로 본다. 이러한 식물문양은 남인도의 아마라바티와 나가르주나콘다 석판부조에서 볼 수 있는 예이다.

(5) 쿠다, 카를라

쿠다(Kuda)석굴(Tab.5)은 A.D. 2세기부터 조영되기 시작했으며 소규모의 석굴군을 이루고 있다. 산지형의 경사로 위에 1개소와 아랫부분에 대부분의 굴이 형성되어 있다. 하나의 차이티야와 다수의 비하라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하라 두 곳에서 스투파가 조각되어 있다. 이는 초기 차이티야 중심의 예배방식에서 점차 비하라에서도 스투파 예배기능을 보이는 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 사례이다.

6굴 입구의 외부벽면(Tab.5.④)에 조각된 Relief Stupa는 괴멸, 풍화에 의해 많이 파괴되었으나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하는데 무리는 없다. 부조는 벽감을 조성하면서 조각한 것으로 고부조이면서 환조형에 가깝다. 반원형의 복발과 단순드럼, 상륜부로 되어 있으며, 복발과 드럼의 비율이 균형을 이뤄 안정적이다. 드럼부가 복발보다는 약간 길어지는데 아래로 1단 띠돌림과 위로 2단의 난간이 있다. 하미카는 상당부분 파헤쳐졌지만 3단을 이루고 있으며 위로 천정새김한 산개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약간 길어진 형태로 전체적인 묘사에서 비례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6굴의 Relief Stupa(Tab.5.⑤)는 불상, 신상, 공양자상이 조각된 불전부조의 윗부분에 작게 오목새김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형태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구성형태는 복발, 작은 기단형태의 드럼과 상부로 되어있는데 형태상 사리기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Tab.5.의 카를라(Karla, Karli)석굴은 석굴군 중에서

Tab.5 Relief Stupa of the Kuda, Karla cave temples

Grottoes	Kuda		Karla
Date	④A.D. 120	⑤A.D. 120	③A.D. 50
Location	6굴 외부 오른쪽 벽면	6굴 내부 전실 오른쪽 벽면	주 차이티야굴 내부 열주 상부
Quantity	1	1	1
Anda(覆鉢) globosity%	60	70	55
Drum (Medhi)	단순드럼 1단 띠돌림	낮은 경사형 단	단순드럼, 상하 각 1단 띠돌림
Vedika	드럼부 2단, 상하 띠돌림	-	미상
Anda/ Drum Ratio	1.6	0.4	1.3
Harmika	3단, 난간추정 받침	-	3단, 하부 4각
Chattrā, Yasti	1, 천정새김, 받침	1, 삼각뿔 산간	1, 짧은 산간
Photos

전방후원의 차이티야와 내부의 중심스투파 양식을 대표하는 화려한 석굴이다. 석굴사원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차이티야(Fig.18)는 가장 안쪽에 암괴를 쪼개 만든 스투파와 그 둘레로 탑돌이길이 있다. 스투파의 드럼은 2단이고, 목조의 산개가 남아있어 스투파의 변화된 양식과 고식의 산개형태를 볼 수 있다.

카를라의 Relief Stupa는 화려하게 장식돼 있는 차이티야 8각석주의 수많은 기둥 중 하나에 1기 보이고 있다. 고부조로 조각되어 있으며, 차이티야 스투파와

Fig.18 Perspective of Karla Cave No.3 (Percy Brown)

부조양식의 유사한 형태로 보아 석굴조영과 같은 시기의 것³⁶⁾이다. Relief Stupa는 반구형 복발과 상하 2단의 띠돌림이 되어 있는 단순드럼이며 3단의 하미카와 산개로 되어 있다. 소형이지만 구성요소를 대부분 갖추고 있다.

3-2. 후기 석굴사원

후기 불교석굴 중에서 가장 먼저 개착되고 규모가 큰

36) 이 Relief Stupa는 좌우측으로 3사자 석주와 2마리의 사슴이 받치고 있는 법륜이 조각되어 있어 모두 붓다와 불법을 상징하는 요소이다.

곳은 아잔타이다. 이와 함께 근거리에 위치한 엘로라, 아우랑가바드에서도 초기불교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조영이 이뤄졌으며 유사한 형식을 보인다. 이와 함께 주요 석굴로는 칸헤리, 담나르, 바그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중 다수의 Relief Stupa는 아잔타와 담나르에 치중되어 있다. 이 시기에는 간다라양식의 영향으로 스투파 표현방법이 변화되었고, 석굴예배의 중심대상이 스투파에서 불상으로 옮겨가는 것을 확연히 볼 수 있다.

(1) 후기 아잔타

후기 아잔타석굴³⁷⁾ Relief Stupa(Tab.6)는 20여기로 차이티야 전면의 facade 외벽과 비하라 중앙 회랑³⁸⁾의 열주 상부, 그리고 벽면의 서사부조가 주를 이룬다.

먼저 비하라 1굴(Tab.6.㉔)은 모두 4기로 스투파형 3기(Fig.19), 사리기형 1기이다. 모두 회랑 열주 상단의

주두에 소형으로 조각된 것이다. 부조 주위에는 공양자상과 비천들이 조각되었으며, 세부묘사는 간략화되었다.

Fig.19 Relief Stupa in the upper part of the pillars of Vihara Corridor

복발은 누운게란형으로 작아지면서 타원형을 보이고 있으며, 드럼이 사라지고 모두 2단의 방형기단으로 표현되었다. 하미카는 각각 3단이고, 천정새김된 산개에서는 다양한 문양의 번장식이 있다. 또한 드럼이 생략되고 넓어지면서 키가 높지 않은데, 이는 조각된 위치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사리기 형식은 문양이 있는 복발과 2단의 기단형식이며, 상부에 뚜껑과 꽃장식이 천정새김되어 있다.

이러한 형식은 Tab.6.㉔, ㉕의 비하라 2굴, 17굴과 Tab.7.㉔의 21굴에서 각각 2기씩 유사한 조각을 보이고

37) 미야지 아키라, 전게서, p.207~208. 아잔타 개굴은 바카타카왕조 후원의 힘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제16굴과 제17굴에는 바카타카왕조의 하리세나왕의 치세 때(465~490년경) 大臣이 시주했다는 내용의 명문이 있다. 바카타카왕조는 굽타왕조와 친연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이를 반영하듯 아잔타미술에는 굽타미술의 영향이 엿보인다. 아잔타 후기 석굴의 연대에 대해서는 이론도 있지만 5세기 중엽에서 6세기경으로 추정하고 있어 굽타시대 후기와 병행하는 시대이다.

38) 후기 비하라의 특징은 안쪽에 불당을 설치한다는 점이다. 굴의 구조는 전기와 같이 큰방의 삼면에 방을 배치하는 형식으로 큰방에 열주를 배열하여 회랑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안쪽 벽의 중앙에는 전실과 내벽으로 이루어진 불당이 개설된다. 비하라에 있어서도 불상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후기 석굴의 특징이다.

있다. 2굴, 21굴에서는 1굴 부조와 유사함을 보이고 있으며, 17굴의 Relief Stupa는 하미카가 조각되고 위로는 산개와 번장식이 생략되어 있다. 모두 드럼이 생략되었고 2, 3단의 방형기단으로 떠가 돌려지고 있다. 그리고 복발은 원형과 타원형으로 초기의 반구형에서 점차 구형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모두 장식적인 요소가 강한 부조로서 세부적인 묘사보다는 의장적인 요소가 크다.

비하라 16굴의 Relief Stupa(Tab.6.㉔)는 조사 대상에서 가장 작은 크기로 복발, 2단의 방형기단, 불분명한 상부구조를 보인다. 조각된 위치와 방법이 특이한데, 방형의 떠가 둘러진 입구 상부의 측면으로 공간을 만들고 끼워넣기식으로 조각되어 있다. 이는 비하라 열주의 Relief Stupa와 유사한 순수 장식용 부조로 크기가 작고 세부 묘사가 간략화 됐다.

다음으로 차이티야 19굴의 Relief Stupa(Tab.6.㉔)에서는 특징적인 형식을 보인다. 하나의 평면공간에 불상 2기와 함께 스투파 4기가, 그리고 출입구 오른쪽 하단에 1기가 조각되어 있다. 먼저 4기를 보면 상하 2기씩 조각되었고 이들은 서로 유사한 형식이나 상부에서 상륜부가 생략되면서 차이를 보인다. 복발에서는 모두 하부가 잘린 구형으로 크기가 작아졌다. 기단은 각 2단의 단순드럼과 위아래로 2, 3단의 띠돌림이 되어 있고, 지면의 최하부에도 띠돌림이 각각 돌려진다. 위쪽의 2기는 연화좌 위에 드럼이 있으며, 드럼부는 문양이 들어가면서 다단의 형태로 고준해진다. 하미카는 형태미상의 것과 각각 3단의 형태이며, 산개는 아래의 2기에서 보이는데 하단에 번이 있고 아래로 술장식을 하였다. 전체적으로 드럼과 상륜부가 강조되어 화려하게 표현된 고층형 스투파 유형을 보인다.

주목되는 것은 정면입구 하단 불감에 저부조된 것이다. 차이티야 19굴(Fig.20) 중앙에는 크고 높은 스투파

Fig.20 Centered Stupa of Chaitya No.19

마련되어 불입상이 봉안(Fig.21)되어 있다. 후기 석굴사원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양식으로 이후 등장하는 불상 위주 조각의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 조형이다. 이러한 환조형 스투파는 facade전면 하부의 Relief Stupa에서도

Grottoes	Post Ajanta				
Date	㉑ A.D. 600~642	㉒ A.D. 6~7세기	㉓ A.D.475~500	㉔ A.D. 475~500	㉕ A.D. 5세기
Location	비하라 1굴 내부 회랑 열주 상단	비하라 2굴 내부 회랑 열주 상단	비하라 16굴 입구 상부	비하라 17굴 전실 열주 상단	차이티야 19굴 입구 전면 우측 상하부
Quantity	4	2	2	2	5
Anda(覆鉢) globosity%	75, 누운계란형, 향아리형 사리기	80	65(누운계란형)	각 80	각 70
Drum (Medhi)	3중 방형기단, 2중 띠돌림(사리기)	2중 방형(상하 2단 띠돌림) 3단 띠돌림	2중 방형 기단	2중 방형기단	단순드럼, 하부-2단 드럼, 3단 띠돌림, 상부-연화좌 위 2, 1 띠돌림, 2단드럼, 입구 하부-감실과 기둥, 불상조각
Vedika	-	-	-	-	-
Anda/ Drum Ratio	각1.2	1, 0.6	1.4	-	1.7~2(4기), 2.8
Harmika	각 3	각 3	연화반 위에 꽃봉우리	3, 천정새김, 옆으로 번 장식	상하부 3단, 방형평두, 1기에서 일체형 하미카, 단독개체-3단, 방형하미카
Chattra, Yasti	각 1, 번과 결합, 하부에서 돌출	각 1, 산개에 번 장식	-	-	3, 하부 2기 아랫부분에 번장식, 상부 천정새김, 단독개체-3 산개, 산간
Photos

Fig.21 A Tabernacle Relief Stupa of Chaitya No.19

Fig.22 Buddhist murals of Pitalkhora

같은 형식으로 조각되어 있다. 상부는 완전한 복발과 3단의 하미카, 산개에 의해 상륜부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하부에는 각종 문양으로 장식된 2개의 기둥과 주두에 의해 건축형식을 표현하고 있으며 위쪽으로 아치형 감실을 형성하고 있다. 중앙에는 콘트라포스토(Contraposto, 三曲)자세의 망토를 걸친 불입상이 여원인, 시무외인의 수인을 하고 있고, 불감과 상부의 복발은 각종 장식이 화려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스투파 도상은 아잔타 10굴과 피탈코라 차이티야의 불전벽화(Fig.22)에서도 보인다. 피탈코라 벽화는 초기보다 후대에 그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스투파와 불상이 동시적으로 표현되는 예이다. 이러한 형태의 등장은 간다라양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례로 로리안 탕가이 출토의 봉헌스투파(Fig.23, 켈카타 박물관)에서는 형식적으로 아잔타 19굴 스투파와 벽화와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

Tab.7의 아잔타 차이티야 26굴은 최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모두 3기의 Relief Stupa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2기는 차이티야당 정면 facade에, 1기는 내부의 불전부조에 조각되어 있다. 입구 전면의 Relief Stupa(Tab.7.㉔)는 다수의 불상부조와 함께 앞뒤로 단을 두어 조성되었는데, 타원형의 복발과 단순드럼, 2단의 방형띠, 그리고 각각 3단의 하미카와 산개로 구

Fig.23 Bronze Stupa of Lorian Tangai

성되어 있다. 하미카는 크기가 작아지고 산개 아래에서 치솟은 번이 장식되어 있다. 후면의 Relief Stupa는 타원형 복발과 2중 기단, 3단의 하미카, 1개의 산개로 앞의 것보다 작은 크기이다. 2기 모두 앞서 살펴본 비하라 열주 상단장식과 유사한 형태이다. 전체적인 길이가 짧아진 형태로 복발과 짧은 드럼, 기단에 의한 구성에서 형태상 차이가 있고 장식적인 요소가 강하게 보인다. 앞서 차이티야 19굴 부조의 고준한 스투파와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시대적 변화양상을 보여 준다. 26굴 차이티야 내부의 Relief Stupa(Tab.7.㉓)는

열주 좌측에 마련된 불전 상단장식의 일부로 명확한 형태를 보이고 있진 않다. 단지 작은 복발과 드럼, 장식문양이 보일 뿐 사리기로 볼 수 있으나 드럼이 있어 스투파로 본다.

(2) 엘로라, 칸헤리

엘로라석굴(Tab.7)은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개착되어 아잔타석굴과 유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³⁹⁾ 엘로라석굴에서 유일하게 보이는 Relief Stupa는 8세기에 조성된 대형 비하라 2굴의 불전 벽면에 2기(Tab.7.㉔)가 조성되었다. 크기가 작고 세부묘사가 생략되어 명확하지 않지만 사리기를 표현한 것이라 생각된다. 앞서 살펴본 Relief Stupa와는 양식적으로 차이를 보이는데 2기 모두 복발의 형태가 라마스투파와 유사하고, 원형보다는 방형과 원형이 혼재된 형태로 하부가 좁아진다. 그리고 드럼은 생략되고 하부로 2단의 기단과 원통형 연화좌로 되어 있다. 상부는 역피라미드의 단순 하미카로 명확한 형태

루어졌다. 베란다와 내부승원에는 많은 불상과 보살상, 비천 등의 서사부조가 조각돼 있으며, Relief Stupa(Fig.24)는 베란다 공간에 6기, 내부의 좌우 벽면에 6기가 있다. 모

두 유사한 형식을 보이지만 초기에 해당하는 차이티야 3굴의 부조양식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 부조들은 3굴에 비해 거칠게

Fig.24 The Relief Stupa of Post Kanheri Vihara

조각되어 균제미가 떨어지며 전반적으로 비정형적인 조각솜씨이다. 복발은 대부분 타원형의 작은 크기이며, 원통형 2중기단과 2중드럼이 혼재되거나 방형의 2중기단이 주를 이룬다. 그러면서 드럼과 방형의 기단이 일체화되

Tab.7 Relief Stupa of the Post Ajanta, Ellora, Kanheri cave temples

Grottoes	Post Ajanta			Ellora	Post Kanheri	
Date	㉔ A.D. 6세기	㉕ A.D. 6세기	㉖ A.D. 6~7세기	㉗ A.D. 8세기	㉘ A.D. 6세기	㉙ A.D. 6세기
Location	비하라 21굴 전실 열주 상단	차이티야 26굴 정면 좌측 상단	차이티야 26굴 내 좌측 열반상 불감	비하라 2굴 오른쪽 승방 벽면	비하라90굴 베란다 정면 3, 1. 좌측 2	비하라 90굴 내부 입구 3, 우측 2, 1
Quantity	2	2	1	2	6	6
Anda(覆鉢) globosity%	65	85(누운계란형)	35	75	75, 누운계란형	75, 누운계란형, 구형
Drum (Medhi)	각 2중 방형 기단	단순드럼, 1단 방형 3단 띠돌림. 2단 방형 3단 띠돌림	2중 기단, 연화좌 위 띠돌림	각 연화좌, 낮은 방형 기단	2중 기단, 2단 드럼 5기. 2중 기단 1기	4기 2중 기단, 2단 드럼, 1기 파괴
Vedika	-	-	-	-	미상	미상
Anda/ Drum Ratio	1, 0.8	1.1, 1.5	2.2	0.9	2.5~3(5기), 1.4(1기)	2.5~3.2
Harmika	각 2	각 3, 방형 평두	-	마름모형	각 3단, 4각 평두	3단 2기, 4단 4기
Chattra, Yasti	각 1, 천정새김, 산간, 상-변 1. 하-변 2	3(하부에 변위 위로 치솟음), 1(뒷면)	-	미상	각 1, 변, 산개의 일체화	4기 각 1, 1기 2개. 변, 산개의 일체화
Photos

를 추정하기 어려우나 사리기 뚜껑으로 보인다.

후기 칸헤리석굴은 아잔타, 엘로라와 유사하게 초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석굴사원이 유행하였는데, 90굴(Tab.7.㉘, ㉙)은 후기에 조성된 중규모의 비하라로 내부의 승원과 베란다, 그리고 입구의 열주로 이

거나 단의 개수가 증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복발/드럼의 비가 커지고 있다. 하미카는 3, 4단으로 작아졌으며 산개의 형태가 특이하다. 각 1, 2개를 보이는데 산개와 변이 일체화되어 표현된 것처럼 보인다. 앞서 언급한 부챗살 모양의 산개와는 또 다른 형식으로 ㄱ자 형태이다. 이러한 예는 칸헤리와 아잔타 비하라 열주에 장식된 Relief Stupa에서도 보이는데, 조각솜씨로 보아 단지 단순화시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39) James Fergusson, 전제서, p.127~128. 불교석굴은 1~12굴이며, 13~29굴은 힌두교굴, 30~34굴은 자이나교굴로서 여러 종교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 주목된다. 12굴 중 비슈바카르만 10굴만 차이티야굴이다.

(3) 담나르

담나르석굴(Tab.8)은 약 4~7세기에 걸쳐 조성된 것으로 근거리에 위치한 바그와 함께 유사한 형식의 석굴군을 형성하고 있다.⁴⁰⁾ 담나르석굴의 특징은 본격적인 비하라 스투파 조영과 다수의 스투파에서 방형대좌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물론 비하라 스투파 부조나 칸헤리와 아잔타에서도 이러한 방형대좌를 보이고 있지만 지리적, 양식전개상 간다라지방의 조각양식이 담나르석굴에 우선적으로 반영됐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방형대좌 표현은 바그석굴(Fig.25)에서도 6각과 8각의 형태로 급변하면서 다각형 기단과 고탃양식의 형태를 보여준다.

먼저 차이티야 6굴의 Relief Stupa(Tab.8.㉓)는 입구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작은 구형의 복발과 짧은 가늘어진 드럼, 그리고 2단의 방형대좌와 하미카가 천정새김되어 있다. 이는 차이티야 12굴 배면에 위치한 비하라굴 입구상단에 조각된 Relief Stupa 4기(Tab.8.㉔)와 유사한 위치와 형태, 크기를

Fig.25 Centered Stupa of Bagh No.1(Lee, Hee Bong; Paper)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장식적 경향이 강하다. 조각적 특징은 6굴, 12굴의 Relief Stupa뿐만 아니라 차이티야 스투파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드럼부가 짧아지고 방형대좌가 강조되면서 점차 드럼이 약화되는 과도기적 양식이라 할 수 있다.

담나르 14굴은 정면 좌측상부와 불전입구에서 2기의 Relief Stupa(Tab.8.㉕, ㉖)가 있다. 좌측의 것은 불전입구의 것보다 비교적 큰 크기이며, 14굴의 환조형 스투파 3기와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부조는 고부조에 의한 표현으로 드럼이 짧으나 방형기단이 길어지면서 각각의 단에서 층을 형성하고 있다. 상부 하미카는 3단으로 작아진 형태이며, 산개는 불명확한 형태로 천정새김되면서 전체 형태가 고준해졌다.

담나르석굴은 비하라에서도 스투파가 다수 조성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차이티야 12굴과 함께 조성된 배면의 비하라에 큰 규모의 스투파(Fig.26)가 만들어졌다. 후기 석

굴사원에 도입된 양식적 특징으로 비하라에서도 예배의 기능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비하라가 아닌 석굴외부에 불감(Fig.27)을 만들어 부조와 환조의

Fig.26 Vihara Stupa of Dhamnar No.12

Fig.27 A tabernacle and Stupa of Dhamnar No.5

스투파가 모셔진다. 이는 초기의 외부 벽면에 조각된 Relief Stupa가 발전된 것으로 아치와 방형공간에 의해 완전한 굴감 형식을 갖추고 있다. 특히 비하라 5굴과 6굴 사이에 조성된 2개의 불감(Tab.8.㉗)은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데 하나는 아치형 입구에 부조로 되어 있고, 바로 옆의 것은 방형굴에 환조형을 보이고 있다. 작은 복발과 짧은 드럼, 길어진 방형기단은 앞서 언급한 14굴의 형태와 유사하다. 5굴의 Relief Stupa는 고부조로 거의 환조형에 가까운 조형으로 스투파가 벽면에서 절반 정도 돌아져 있다.

차이티야 12굴의 Relief Stupa(Tab.8.㉘)는 앞서 살펴본 여타 석굴과는 다른 독특한 배치를 보인다. 차이티야 전면의 출입구와 함께 좌우로 8기의 크고 작은 Relief Stupa가 조

Fig.28 Entrance to the front of Dhamnar No.12

각되어 있으며, 내부 중심스투파가 봉헌되어 있다. 정면 입구(Fig.28) 상부의 2기와 오른 벽면의 Relief Stupa는 마멸이 심하여 구체적인 형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출입구 정면 상단의 3기는 사이사이에 전통적인 아치형 건축 문양이 있으며, 왼쪽의 1기는 그 상태가 양호하다. 전반적인 형식은 작은 복발과 낮고 좁아진 드럼, 2중기단, 그리고 하미카와 산개가 천정새김되어 있다. 출입구 좌우의 비교적 규모가 큰 부조 2기는

40) 이희봉, 앞의 논문, p.118. 담나르는 차이티야굴이 다른 굴에 비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주목되며, 차이티야와 비하라굴에 다수의 스투파가 모셔져 있다.

Tab.8 Relief Stupa of the Dhamnar cave temples

Grottoes	Dhamnar					
Date	㉑A.D. 4~7세기	㉒A.D.4~7세기	㉓A.D.4~7세기	㉔ A.D. 4~7세기	㉕A.D.4~7세기	㉖A.D.4~7세기
Location	차이티야 6굴 입구 상부	비하라 5~6굴 사이 상부 굴감	차이티야 12굴 배면 승방베란다	차이티야 12굴 입구 좌우 2, 출입문 상부 3, 우측 1, 좌측 2	14굴 불전굴 입구 상부	14굴 정면 좌측 상부
Quantity	1	1	4	8	1	1
Anda(覆鉢) globosity%	70	80	60?	70~80	70	80
Drum (Medhi)	2중 방형기단, 단순드럼 상부 2단 띠돌림	방형기단(하부 파괴), 단순드럼, 상하 3중 띠돌림	1기 기준, 2중 방형기단, 단순드럼 상부 띠돌림	2중 방형기단(대형 4기, 소형 3기), 1단 방형기단(대형 1기), 단순드럼 상하 띠돌림, 소형 작은 드럼	2단 방형기단, 작은 단순드럼(상하 띠돌림)	2중 방형기단, 단순드럼 상하 띠돌림
Vedika	-	-	-	-	-	-
Anda/ Drum Ratio	2	2.1	약 2.5	2.5~3.3(대형), 2(소형)	2.8	2.4
Harmika	방형 천정세김	3, 작아짐	-	대부분 멸실, 파괴, 환조형 3단	-	3, 상부 작아짐
Chattra, Yasti	-	1, 천정세김. 산간	-	대형 각 1, 환조형 천정세김	1, 천정세김	미상
Photos

벽면을 파고 들어간 심조의 조각수법을 보이고 있다. 반구형의 복발과 드럼, 높고 넓어진 기단이 특징적으로 기단 하부에 방형의 공간을 만들고 있어 불감을 만들고자 한 의도로 보인다. 그리고 벽면을 파들어 가면서 조각을 부각시킨 것으로 보아 후대에 부가된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부조로는 좌우에 위치한 Relief Stupa 중 좌측 벽에 부가된 것(Fig.29)

으로, 다른 개체와 달리 투조에 의한 조각수법을 보인다. 이러한 조각수법은 담나르에서 유일하게 보이는 사례로 전체적인 형식은 유사하지만 뒷면의 벽이 투각되면서 반대쪽 굴의 전경을 보이고 있다. 조각수법은 부조로 되어 있으나 투조에 의한 환조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유형은 앞서 언급한 5굴

Fig.29 Openwork type Relief Stupa of No.12

과 6굴 사이에 조성된 굴감의 환조 스투파와는 또 다른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담나르석굴의 Relief Stupa는 20여기에 달하는데 형식적인 동질성이 보이고 있어 거의 유사양식이 적용되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주요 특징으로는 원형에 가까운 복발과 짧아지고 좁아진 드럼부, 그리고 크기가 커지면서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는 방형기단의 도입, 작아진 상륜부의 하미카와 산개를 들 수 있다.

4. 석굴사원 Relief Stupa의 형식

석굴사원 Relief Stupa는 일반사원 봉헌용 부조와 형태상 유사한 양상⁴¹⁾을 보이나 조영 장소와 성격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사리안치 유무에 따라 성격을 달리하는데, 일반사원이 사리가 안치된 스투파가 중심이 되는 반면, 석굴사원에서는 사리가 없는 기념비적 스투파와 봉헌용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즉 두 사원에서는 유사한 형식의 Relief Stupa가 표현되어 있는데, 기본성격에서 차이가 있고, 표현대상에서 조금씩 다른 면모를 보인다. 석굴사원 Relief stupa는 봉헌용도에서 일반사원 부조와 의미상 차이는 없으나 조성된 공간의 특수성이 반영되고 있다. 즉 일반사원 탑문과 난간의 Relief stupa는 진신사리나 삼보가 모셔진 일반사원 스투파의 형태와 형식을 어느 정도 취하고 있다. 반면 석굴사원의 차이티야 스투파는 암벽 전체를 조각한 것으로 내부에 사리를 안치되지 않는 봉헌스투파이자 기념비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석굴사원의 Relief Stupa의 특징을 보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석굴사원의 조성위치로, 차이티야, 비하라의 입구 벽면이나 내부 열주에 주로 표현된다. 이는 앞서 연

41) 본고에서는 주로 석굴사원이 주 대상이나, 앞서 연구된 일반사원 스투파와는 양식적 차이를 보이고, 상징과 의미에서 다르므로 전반적인 스투파 발전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 일반사원 Relief Stupa에 대해 일부 언급한다.

ISSN 1588-1142(Print)

구된 일반사원 스투파와는 사원형식에 의한 근본적인 차이라 할 수 있으며, 크게 차이티야와 비하라 부조로 구분할 수 있다. 전기 석굴은 조각이 가능한 모든 공간에 부가되었는데 반해, 후기 석굴은 계획적인 의도에 의해 부가되면서 외부벽면이나 열주 상단에 부가되면서 봉헌적인 요소보다 공간을 장식하는 역할이 커진다.

둘째는 석굴사원 Relief Stupa의 표현 대상이 된다. 석굴사원은 수세기에 걸쳐 조영되었으므로 시기적인 차이에 의해 부조의 양상도 달리하게 된다. 즉 중심이 되는 차이티야가 조영된 비슷한 시기의 부조에서는 유사한 양식을 보이거나, 비교적 후대의 것에서는 당대 양식이 반영된 Relief Stupa가 표현되었다. 그러나 후기 석굴사원에서는 스투파 형태에서 보다 자유로운 형식으로 변모되는데, 이는 이후 설명될 장식적 경향과 연관하여 이해할 수 있다.

셋째는 Relief Stupa의 형식으로, 이는 일반사원의 순수봉헌용 스투파와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 즉 일반사원과 석굴사원의 순수 봉헌용 Relief Stupa의 큰 특징은 복발과 함께 드럼, 하미카, 다수의 산개를 들 수 있다. 이는 일반사원 전경을 묘사한 부조와 형식적인 차이로 할 수 있으며, 석굴사원에서는 모두 드럼이 묘사되고, 하미카와 상륜부가 강조되는 특징을 보인다.

넷째는 석굴사원 Relief Stupa의 상징과 장식성을 들 수 있다. 석굴사원의 Relief Stupa는 일반사원 Relief Stupa처럼 상징적이고 장식적인 의미가 강하다. 그러나 이러한 상징성은 기본개념에서 유사하나 석굴사원이라는 장소적 특징이 반영된다. 특히 전기 석굴사원에서는 상징성을 가지고 부가되었는데 반해, 후기 석굴사원에서는 계획적인 평면계획에 의해 점차 장식적인 경향이 강해진다. 이는 전기석굴이 스투파 중심의 조영이었다면, 후기 석굴에서는 주요 예배대상이 불상으로 변모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각 시대별 석굴사원 Relief Stupa의 발전 양상은 다음과 같다. 먼저 초기 석굴사원 스투파는 반구형 복발, 단순드럼, 하미카와 산개가 있는 상륜부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균형잡힌 형태를 보인다. 그러면서 드럼과 상륜부는 세부적인 묘사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면서 차이티야 스투파와 유사한 계통성을 가진다. 이러한 형식은 Relief Stupa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초기석굴사원은 과거부터 성행한 석굴양식을 받아들이고 본격적으로 스투파를 조영하면서 사원이 확대되었다.

초기 석굴 스투파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장식이 적으며 낮고 큰 복발을 주로 보이고 있으나, 점차 장식이 많아

지고 복발이 원형과 누운 계란형으로 발전한다. 초기 석굴사원 중 비교적 후대에 속하는 부조에서는 누운계란형의 복발을 보이기 시작한다. 드럼의 특징으로는 복발과 드럼의 비가 주로 1:1을 보였으나, 점차 복발이 작아지고 드럼은 길어진다. 그리고 원통형 드럼 형식은 점차 간다라양식이 수용되면서 드럼과 기단이 결합되는 형식으로 발전한다. 상륜부는 초기의 식물줄기와 봉오리가 조각된 예가 보이지만, 대부분 원반형의 산개 형태가 나타난다. 그러나 중앙에서 8각의 짧은 산간에 의한 단순한 표현도 보이고 있어 산개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 외에 산개는 부챗살문양을 보이는데, 이는 산개와 번이 결합된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즉 초기 석굴사원의 Relief Stupa에서는 복발이 점차 타원형으로 작아지면서 드럼부에서 단이 형성되고, 상륜부가 작아져 하미카와 여러 단의 산개가 강조되면서 고준해진다.

후기석굴에 조각된 Relief Stupa는 초기석굴의 스투파 양식과 간다라 스투파 형태가 지속적으로 혼재하면서 발전했다. 간다라지방의 스투파를 보면 복발이 작아지면서 크고 넓은 방형기단이 생기고, 기단의 중앙에 작은 감실과 불상이 표면에 조각되고 있어 이를 통해 양식적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후기 석굴사원의 양식적 특징은 초기의 반구형 복발이 점차 타원형으로 작아지고 그 비중이 작아진다. 즉 후기 석굴사원의 Relief Stupa는 초기의 지속적인 발전형으로서 복발이 작아지면서 장식적인 효과가 강조되고, 드럼, 방형기단이 조각되거나 방형대좌로 변모됨과 동시에 고준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드럼은 원통형으로 단순하게 표현되었던 것이 점차 다단의 층을 형성하거나 방형을 보이는데, 이는 사각대좌의 기단형식이 반영되면서 고층형 스투파로 변화된 것이다. 그리고 복발과 드럼 비는 초기의 1:1에서 후기에 들면서 복발의 형태가 타원과 원형이 되고 작아지면서 1:1.2~1:5 이상으로 커지게 된다.

상륜부의 조각은 변잡화려해지면서 작아지고 고준해지는 양상으로, 하미카의 표현은 작은 형태로 변화되고 층단의 역할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리고 하미카 상층에서는 들여쌓기 형식이 몇 기 보이고 있다. 산개는 작아지고 다단의 층을 형성하고 장식이 부가되면서 고탐형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러한 조형방식은 후기 석굴사원에서 더욱 발전된 형태를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아잔타의 16굴, 26굴, 29굴 등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석굴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여전히 스투파이며, 양식적 변화와 함께 감실이 있는 불전과 결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면서 스투파에 감입된 불상이 중앙에 면하면서 불상이

주 예배대상이 된다. 이러한 양식적 경향은 후기의 조형 활동에서 스투파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면서 조각의 위치와 규모 면에서도 그 양상을 달리하게 된다.

5. 결 론

Relief stupa에 대한 분류분석은 인도 스투파가 전파 되는 하나의 계통적 흐름을 이해하고 다양한 발전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Relief stupa를 통해 인도 시원스투파의 형식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석굴사원 Relief stupa는 일반사원 봉헌용 부조와 형태상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석굴사원 조성배경과 의미가 다르므로 표현 방법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특히 현존하는 석굴사원의 차이티야 스투파가 상당부분 손실되고 본래의 형체를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석굴에 조성된 Relief Stupa를 통해 양식적인 전개에 대한 분석이 가능했으며 그 특징을 이해할 수 있었다.

초기 석굴사원은 반구형 복발, 단순드럼, 하미카와 산개가 있는 상륜부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균형 잡힌 형태를 보였다. 그러면서 드럼과 상륜부의 세부적인 요소에서 그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차이티야 스투파와 계통성을 가진다. 후기 석굴에서는 간다라, 마투라 미술의 영향으로 주요 예배대상이 스투파에서 불상으로 옮겨가면서 스투파의 중요성이 낮아졌다. 이는 Relief Stupa에서도 형식적 변화와 함께 세부적인 요소에서 차이를 보이고, 조각된 위치에서도 차이티야 입구 벽면이나 비하라굴 내부 열주에 한정되어 장식적인 의미가 강해졌다. 즉 일반사원 스투파나 전기 석굴사원에서는 상징적인 요소와 함께 장식적으로 부가되었던데 반해, 후기의 석굴사원은 계획적인 평면계획에 의해 구획되면서 장식적인 경향이 강해지는 양상이다. 형태상으로도 후기 석굴사원에서는 스투파의 중요도가 약해진 것과 함께 고탑의 형태로 변화되었다.

일반적으로 인도 스투파 연구는 일반사원 양식을 언급하면서 석굴사원 스투파를 언급하게 된다. 그러나 정작 석굴사원에 조성된 스투파와 Relief stupa는 의미와 양식에서 사리가 안치된 스투파와는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석굴사원과 스투파의 특징은 인도 스투파 연구에 있어 형태적 연관성과 함께 그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스투파의 형태적 연구뿐만 아니라 의미적 고찰에서 가교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References

1. A. Cunningham, Mahabodhi or the great Buddhist temple under the Bodhi tree at Buddha-Gaya, W. H. Allen & Co., Limited, 13, Waterloopleace, S.W., 1892
2. Adrian Snodgrass, 『The Symbolism of the Stupa』, Motilal Banarsidas Publishers, Delhi
3. Benjamin Rowland, 『Indian Art History』, Yekyong, 2004
4. Beob Yun, 『Follow in the footsteps of the Buddha』, Jungto, 2001
5. Cheon, Deuk Youm, 『Semantic Analysis of Indian Original Stupa』,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Vol.2, No.2, 1993
6. Christopher Tadgell, 『The History of Architecture in India』, Architecture Design and Technology Press, London
7. Dae Youn, 『Buddhist Pilgrimage』, Eastward, 2010
8. Dietrich Seckel, 『The Art of Buddhism』, Yekyong, 2007
9. James Fergusson, 『History of Indian and Eastern Architecture』, John Murray, Albemarle Street, London, 1891
10. Lee, Ju Hyung, 『Buddhist Art in India』, Korea Foundation, 2006
11. Lee, Hee Bong,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Buddhist Rock Cave Temples of India』,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Vol.21, No.4, 2008
12. Maria Angelillo, 『India, History and Treasures of an Ancient Civilization』, itreebook, 2007
13. Matsubara Sabro, 『Oriental Art History』, Yekyong, 2009
14. Miyaji Akira, 『Indian Art History』, Dahal, 2006
15. Yun, Jang Seop, 『Indian Architecture』, Snupress, 2004
16. Percy Brown, 『Indian Architecture』, D. B. Taraporevala Sons & Co. Private Ltd. Bombay, 1956
17. <http://terms.naver.com/item>

접수(2011. 10. 11)

수정(1차: 2012. 8. 21)

게재확정(2012. 8. 22)